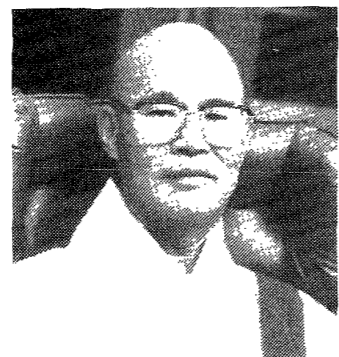




### 이 사 장 입학치사

## 이성, 감성, 의지의 조화 필요 품위지닌 교양인 자질 연마하도록

천재하는 신입생 여러분!  
경쟁이 심했던 입시의 관문을 넘어서 영예롭게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것을 중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는 바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동국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이 남산기슭에서 박한 대학생활을 열어갈 동국인이 되었습니다.  
금년으로 개교 90주년을 맞이한 우리 동국대학교는 그동안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온 민족의 명문대학입니다. 위대한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미래의 창조적 지성인을 양성하는 전통의 사학입니다.  
흔히 대학을 지성의 산실이며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지만 미래의 대학은 보다 나은 인류의 복지건설을 위한 밑거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념적 지식의 전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천적 의지와 창조력을 기르는 생산적 도량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도 넉넉한 인간성과 품위를 지닌 교양인을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재단으로서 이 원대한 교육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이룩하고 건학정신의 구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금년 봄에 개관할 동국학술문화관과 분당관방병원의 개원과 더불어 최근에 이룩한 일산의 제3캠퍼스 부지 확보와 수도관에 불교병원건립계획 등도 차근차



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재학하는 기간동안 이와같은 동국발전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국제화, 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세계속에 우리의 위상을 확립하는 일, 세계와 어깨를 겨룰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실현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실력있는 동국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드넓은 진리의 세계를 탐구하고 어려운 현실의 난관을 극복할수 있는 유능한 지성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앞에 겸연하고 불의앞에 의연한 진정한 대학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흔히 지성인의 조건을 말할때 이성, 감

성 그리고 의지를 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조화를 이룰때 그 값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감싸며 불공의 의지로 난관을 헤쳐 나가는 참 용기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선배들인 10만 동국인들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명예와 전통을 이어 나가는 훌륭한 동국인이 되어 주실것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적인 뒷받침을 해주신 학부모님들의 은공과 여러분을 가르쳐주신 은사님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하십시오.  
은혜를 알고 보답할수 있는 지성인이 곧 성실한 인간의 참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동국발전이 지대한 열력을 가지신 숭석구 총장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원만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오석원 함장

### 총 장 입학식사

## 동국발전 대장정의 선봉되길 창조적인 미래 기약하는 지성 갖춰야

천재하는 신입생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역경을 넘어 대학의 정취와 낭만속에 창조적인 미래를 기약해 나가야 할 동국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금년으로 개교 90주년을 맞는 전통의 민족사학입니다.  
험난했던 일제시대의 난관과 6·25의 비극속에서도 굳건히 제 자리를 지켜온 찬연한 역사를 간직한 대학입니다.  
지금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삼만동들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생 여러분은 동국의 명예를 계승할수있는 미래의 주역으로서 성장할 기틀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동국대학교는 불교학을 비롯한 동양학, 한국학계의 명문대학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초과학을 비롯해서 컴퓨터공학 등 공학계열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첨단과학분야에서도 명실공히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신과 물질의 조화같이 바람직한 인간격을 이루듯이 이와같이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균형있는 발전만이 대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개관을 눈앞에 둔 동국학술문화관과 분당 병원의 개관뿐 아니라 일산의 제3캠퍼스건설과 수도권의 불교종합병원건립 등이 하나하나 가시화 되고 있는 이 고무적인 시점에서 우리는 동국발



진의 대장정을 단 하루도 늦출수가 없습니다.  
천재하는 신입생여러분!  
거대한 지성의 도시라고 할수있는 대학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그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 대학도 세계화, 변화, 개혁이다 하는 시대적 추세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서 우리 동국대학교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대학으로 이해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동국대학교는 낡은 전통과 보수의 틀을 깨고 과감히 교육개혁을 단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유능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오랜 연구와 검토를 거친 철학적이고 효율적이며 창조적인 개혁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학교육

의 실용화, 컴퓨터 교육의 필수화, 복수전공의 기회확대등도 그 실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이 현실적인 필요만을 강조하는 동신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아직도 소중할 인문주의를 숭상하고 진리에 대한 영원한 향수를 갖는 불교사상의 보고가 우리 동국대학 학문정신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국대학의 건학이념을 올바르게 구현해야 할 사명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진실로 한국인답을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세계화가 아니라 명국화일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의 밑바닥에는 불교가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전통속에 융화되어 있는 불교의 향기는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교의 영향력을 오늘의 우리 문제에 적용시키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불교의 현대화 그리고 현대 산업사회의 불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아름답고 소중한 희망들이 앞찬 결실을 맺게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총장 숭석구 함장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통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등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계시판이나 ID:dgpress@naver.com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 동/문/칼/럼

###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다



어제 같은데 벌써 20여년전. 항상 푸른것 같고 영원할것 같은 청춘도 40대 중반이라는 나의 세월속에 묻히고 인생이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또한 간절히 원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보내야만 하는 용기 또한 결코 쉽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인연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보내지 못하고 부정하며 미워하고 변명하는 것은 아닐까? 나 또한 거기에 속하는 하나의 속물일뿐...  
후배들이여! 이제 마음이 소생하는 봄이와 그봄의 따사롭고 밝은 햇살처럼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남겨 준다면 내인생의 들뜬은 허허지지 만은 않으리라.  
이 광우  
(제474호 '쌍용회재' 지점장)

### 경주캠 발전의지 멈출수 없다

올해도 등록금이 여지없이 인상 되었다. 인상분의 퍼센티지가 밝혀져서 학생회측에서 절거능성에 이미 들어가고 학교교협 협상하고 있지만 개인적 일반 학우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해볼까 한다.  
등록금 인상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돈이 많아서 그렇게 아니라 등록금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의 금액에 대해 학교에 투자되어 질 것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뚜렷한 명분없는 등록금 인상에 절대 수긍이 가질 않을 뿐더러 이해가 되지 않는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올해도 경주캠의 지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안다.  
말자는 태어났으면서부터 지금까지 성장에서 죽 살아왔다. 그러면서 등대가 생길때부터 지금 재학하고 있

는 17년을 살며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다. 내가 어린 시절 보아왔던 건 물이외에 본것은 자연 과학대 건물 하나 뿐이다. 그러니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다름바 없고 바뀐것이 있다면 재학하는 학생뿐인 것 같다.  
위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지 모르겠지만 새로이 고3이 되는 후배에게 우리 학교로 오라고 권유했더니 후배가 말하길 몇년동안 우리 학교를 살며 본 결과 아무런 투자가 없는것 같더라 그런 말 전성 없는 학교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비록 웃음으로 넘기긴 했지만 이건 분명히 큰일이다. 지금 재단과 학교측에서는 제3캠퍼스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가 반 등록금이 일산으로 가고 있

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제3캠퍼스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식으로 더 이상의 경주에 투자가 없다면 그건 필시 우리 경주캠은 물론 주제인 우리 학생들을 죽이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을 학생으로 보지 않고 한 묶음의 돈 다 발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많은걸 바라지 않는다. 최소한 내가 반 등록금 만큼의 권리를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다. 다른 일반 학우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은 무관심하게 있지 말고 최소한의 자기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약간의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유문식  
(인문과학대 국어국문학과)

본지는 독자여러분의 더욱더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호부터 하나의 주제에 관해 재치있는 독자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담아내는 '소나기'라는 칼럼을 신설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편집자)  
(다음호 주제)  
등록금 인상

### 목격골

축하합니다

- 지교과 편입생 세븐! 한 식구 된것 진심으로 기쁘구요. 잘 살아봅시다. - 지교인
- 수교과 '92 문승현·서영민 학우가 3년만에 공부시작한데요. 복학 축하. - 92 우석
- 지교과 '94 박종경(일명:개구리)생일 건넬게 추가, 열라 추가!! - 애인같은 친구들
- 과학과 용연아! 복학을 축하해줘. - Mr.동
- 역교의 왕자(?) 공경범(94)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96년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국문과 화성회 일동
- 학생회장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96년 한해를 멋지게 살아주길. - 국문과 일동

### 동/악/광/장

축하합니다

- 역교 신입생 여러분! 입학 축하드리구, 선배인니 선배 오빠가 너무 이뻐서 죄송합니다~
- 밤+수제비+라면+우동+김밥 사준 지교과 '91 성관이형, 복학 축하 드림
- 제교 신입생 합격을 축하합니다.
- 제교과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멋지고 알찬 대학생활, 지교과에서 함께해요. - 지교과 선배가
- 저의 제2의 어머니인 외할머니의 일흔잔치를 축하합니다. - 할머니가 제일 이뻐하는 손녀울림
- 생명자이과학부 새내기 여러분! 입학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대학생활을 보내길 빌게요. - 식자 '95
- 개강을 맞은 동악인 모두 축하해요. - 동악인
- 전자공학과 '돌빛'에서 전자공학과 신입생 입학 축하드려요. - 어느 선배
- 수고하셨습니다
- 지교과 예쁜 '96 새티 갔다 오

### 온방골

축하합니다

- ELF 화이팅! - 만화동아리 또다른 이야기
- 역교 신입생이 경제해야할 Black list 첫째- 고재트 '90, 둘째- 공군!! 셋째- 구박대(김명오). - Breeze
- '96영문후배여러분 아직 나를 못찾죠. 잘하면 오늘 불수 있을지도... - 94 Titan
- 문과대학생회에서 가방2개 출제가신 분, 소중한 지갑과 수첩을 돌려주세요. - 지너
- 시사연장이랑 고2랑 C-C다! 키득키득 - 96 '90교정현
- 경육아! 군대 잘 갔다와 건강해야돼. 통대리는 우리가 잘 지키고 있을게. - 손·사 10·11기 일동

진심으로 축하한다. 올 한해도 열심히 생활하고 한결같은 마음 변치 않길 바란다. - 통신이가

'96새내기의 입학 축하드립니다. - 상대 민중노래대 강철사랑

예비대학에서 국사학과로 배정받은 새내기들, 정말 수고많았어요. 잘 삽시다. - 솔먹고 개원선배

상경대 새내기들 진심으로 환영해요. - 선배가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대학 참여기회!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동아리연합회 제10대 눈높이 가족 일동

2월26일졸업앨범 배부를 도와 주셨던 선배님, 후배님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항상 행복하시길... - 제7대 졸업준비위원회

남들이 수고했어. 올해도 열심히 삽시다. - bearS

예비대학 준비를 애쓰신 경영학우, 수고하셨습니다! - 95경영 준석이가

고미사 징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Fighting! - 고미사 94

국문과 회수선배, 정제선배, 그리고 여러 학우님들 따분!! 수고하셨습니다. - 앞배국문

법학과를 위해 방학중에 열심히 일한 회장님 징부들께 감사드립니다. - L-K-H

열심히하세요

말씀 드고그의 첫공인 힘내라. - 이뿐이

통일세대 회원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마음으로 열심히 삽시다. - 회장 마성희

그리고...

예비대학 무시하 치룬길 고맙게 생각하며 - 총학생회장

얼떨결에 우리형 복학하는데 따라왔다. 우리 큰형 머리싸고 재대하는데 과연 신선한 후배를 따라갈수 있을까. 힘!! 수고하고 열심히 복학을 축하하고 그리고 등도 잘말아. - 하하

### 시사특집

## 북한 붕괴설과 우리의 대응

### 남북간 긴장완화·평화정착 모색



강성순

사회과학대 북한학과 교수

김일성 사망후 북한체제의 붕괴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듯 국내외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 전개되어지고 있는 붕괴설의 논리적 근거는 정치적 측면에서 김일성의 당총서기 및 주석취임 지연, 경제적인 면에서는 식량·에너지 부족에 따른 재정불가능한 만성적인 경제위기 사회적 측면에서는 김일성의

경제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현지도부의 붕괴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붕괴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정부내에서도 "북한이 중장기적인 체제붕괴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중이며 북한 유사시에 대비한 위기대처 시나리오의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변국가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붕괴가능성은 북한현실에 대한 인식의 합의를 위한 상황범의 이라기 보다는 각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려는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의 지니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가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붕괴가능성은 북한현실에 대한 인식의 합의를 위한 상황범의 이라기 보다는 각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려는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의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북한붕괴설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듯이 그 주장에 따른다면 북한체제는 이미 소멸되어있어 타당하다.

따라서 '붕괴가능성' 그 여부에 관한 문제보다는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대한 이해, 관련국의 입장 그리고 한국의 대응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제라 하겠다.

지난 50여년간 북한체제가 유지되어 온 것에 대하여 우리의 시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듯이 더욱이 북한이 처한 현실상황에 대한 판단을 우리의 처로 측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은 그들 나름의 독특한 체제와 체제관리방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향방을 흔히 말하는 동쪽의 사례로부터 시사받을 수는 있었으나 북한이 제2의 동독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근래에 탈북·귀순자들이 증가하고 계층이 다양화하는 탈북 도미노'양태를 띠고 있으나 과거 소련이나 동구에서 본 반체제적인 인사들의 탈북이 아니라 아직은 한결같이 개인적인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물론 북한의 김일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붕괴가능성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북한체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것이거나 목적론적인 상황의 규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북한을 오랜동안 관찰해온 대다수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붕괴가능성 여부 문제와 관련된 하나의 특징은 주변 어느국가도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붕괴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미국의 존 도이치 중앙정보국장은 2월22일 미상원정보위 청문회에서 조연설을 통하여 "북한의 정치 및

경제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현지도부의 붕괴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붕괴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정부내에서도 "북한이 중장기적인 체제붕괴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중이며 북한 유사시에 대비한 위기대처 시나리오의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변국가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붕괴가능성은 북한현실에 대한 인식의 합의를 위한 상황범의 이라기 보다는 각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려는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의 지니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가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붕괴가능성은 북한현실에 대한 인식의 합의를 위한 상황범의 이라기 보다는 각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려는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의 지니고 있다.

간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선·남북관계의 진전 후·미일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미·일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북한의 상황을 '고장난 비행기'로 비유하면서 한국 나름대로의 붕괴론을 펼쳤다. 따라서 언제 추락할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의 수립이 강조되고 실제로 난민수용문제와 같은 대책들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체제의 특성에 의하여 그 누구도 정확히 전망할 수는 없지만 붕괴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미·일의 북한붕괴론이 한국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붕괴론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 의심스럽다.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대비를 해야겠지만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을 강조하며 붕괴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우선적으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해법은 일관된 정책아래 사안별 순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주저없이 선택·실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 ◆비자금 정국 재조명

## 3김, 비자금설 놓고 의견 충돌 팽배 국정조사권 발동 특검제 도입해야



△비자금과 5·18정국은 우리사회를 한바탕 태동전야로 만들었다. 대국민적 측면에서 조속한 진상규명과 모든 관련자 처벌을 이루어야 한다.

비자금 정국이 사실상 일단락 되었다. 5·18특별법 문제와 함께 불거진 비자금 사건으로 신군부요인 16명의 사법처리가 단행되었다. Y·S정권이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비자금 수사는 그 말마따나 관련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화뇌동과 지식인의 왜곡로 점철되어온 우리의 골절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었으며, 한 시대를 짚는 시점에서 관련자들로부터 '회개'와 '반성'의 고백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법처리 된 요인16명은 반성은 커녕 당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만 늘어 놓고 있을 뿐이다. 비자금정국이 대두되면서 사법처리 외에도 Y·S정권의 대선자금 공개에 여론의 포화도 집결되었다. Y·S는 자신과 직접관련된 이 논의를 회색을 취해, 또한 정권연장의 전술로서 지역을 확보한 기반을 두고 있는 두 정치거물의 퇴진과 5·18특별법 제정 및 개헌검토등의 활동을 추진했다.

이를 맞아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김대통령 노태우 비자금 수수내역 공개 촉구 결의안'을 작성제출하고 최근 논란 정국의 원인을 1인통치 탓으로 돌려 김대통령을 끌어치기도 했다. 또한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5·18진상규명과 대선자금 공개촉구를 위한 비상시국 대강연회'를 통해 정국수습의 해법을 Y·S와 4당대표의 5인회동이라 밝히고 특검제의 조속한 채택과 국민회의 탄압중지를 요구했으며, 자민련 김중범총재는 특별기자회견장에서 정치회복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 YS-DJ의 정국에서 JP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구도를 제시하고 "소급입법으로 관련자를 포괄 처리하는 초입법적 과거정산은 그 자체가 청산되어야 할 불행한 과거가 될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나 막상 야당의 이러한 정치적 공세에 여당은 오히려 5·18특별법제정과 12·12쿠데타에 대한 법적조치라는 초강경수호 대응하게 된다.

신한국당은 5·18특별법의 세부내용을 핵심쟁점인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제3조 제1항, 제2항에 내란등 현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후 대통령이 된자 등에 대해서는 그 재임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이경우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을 미친다. 또 부칙2조에는 79년 12월12일 이후 행해진 현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그 행위일로부터 93년 2월 24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로 확정되어 2009년까지 모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5·18관련 피고소·고발인 83명 중 '내란형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씨등 11명을 소추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는 뭔가 앞뒤가 맞지않은 태도이며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가 성역있는 수사로 바뀌어 제자리걸음만 하는것이 아닌가, 이에 수사미진이라는 전국민적 비난의 곤혹을 면치못하게 됐으며, 여·야는 추가수사, 비자금 사용처 합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 앞으로 있을 사정이 총선에 미칠 영향등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한편, 모일간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수구속 잡혔다 85%, 12·12, 5·18관련자 모두 구속 76%, 특검제도입 79%로 국민의 절대다수가 처벌의 강경대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민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는 이런 '한정소추'의 한계를 깨고 관련자 전원을 추가 기소하는 것에서부터 그 대의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진정으로 우리의 역사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5·18문제와 통동그러져 소리소문없이 피리를 감추어버린 비자금설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물론 수사의 진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회청문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통한 특검제 도입이다.

(송선영기자)

지난호 만평은 제작상 변동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 사설

## 새 동국인·새 출발·새 의지

이제 동국이 대도약의 전환산상에서 새 역사의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여러 방면에서 제도와 교육내용 및 방법의 개선과 혁신이 추진되어 왔다. 이즈음 동국의 새 식구들을 맞이하게 되어 교정은 이들의 부른 기대와 조바심과 함께 신춘의 생명력을 잔뜩 머금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마냥 막연한 낙관적 전망과 감회에 젖어만 있을 수 없다. 이 총명한 희망과 새 동국 건설의 벽천 소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차질없이 구현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볼 필요가 필경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힘든 난관을 거치고 오로지 이 동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새 동국인들의 자기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은 책임을 깨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동국인을 이끌어내야 할 대학구성원들은 아직도 대학개혁의 절실성과 자기반성의 투철성을 강요해 다지지 못한 기미가 어느 정도 남아있음을 보게 된다. 여전히 '강 건너 불'이요 '함바탕의 바람들이'쯤으로 애써 자기변혁의 당위성을 외면하고 있거나, 여전히 오도된 도그마에 함몰되어 있거나, 자기인일의 이기주의적 발상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여러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과감하게 달라진 학사제도와 교과내용을 현장에서 실험해야할 교수·직원들의 태세도 아직은 신령이 나지 않은 것 같고,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의 과정도 좀더 유연성을 지녀야 하겠고, 학생들의 면학태도와 교정생활도 한층 진지성을 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사에 상호존중의 여유가 아쉽다. 아직도 불신과 회의가 군데군데 스며 있으며, 대결적 문제해결방식에 익숙해진 태성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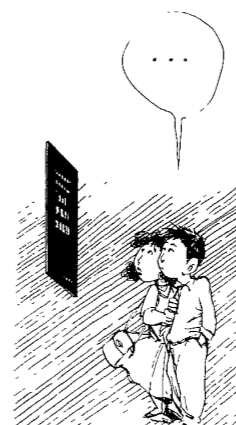
일반적인 요구와 기대를 관철하기 위해 물리적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는지, 또한 평분만을 내세운 밑거름기식의 고압적 태도만 견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새 동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 앞에 쌍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화합과 절충의 미덕을 발휘해야 하겠다. 90년 전통과 일백년 비전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동국인이 된 새 가족들에게 펼쳐 보여줄 수 있는 풍경을 교차 대립과 불화와 파행의 모습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학의 새 주체들은 상호보완의 입장에서 총화를 지향할 때 학교발전의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각자의 권위만 내세우고 자기명분만 주장하며 상대방을 극복의 대상으로 본다면 결국 각자의 명분과 실리는 상쇄되고 미래지향의 발전의지는 발목이 잡혀 주저앉고 만다.

새 식구를 맞이하여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진정한 동국발전의 길은 무엇이며, 각자가 해야할 몫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살펴보자. 어떤 어찌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기득권으로서의 권, 그리고 무사와 안일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일 수도 있다.

### 동국만평

강성수



UN FILM DE YOUNG SAM KIM

## FULL METAL JACKET

남한 15대 총선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 한걸음 갈때 다섯계단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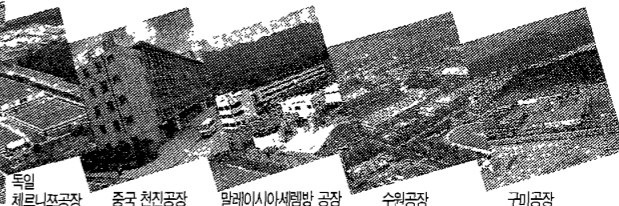
이병래 이사 '77년 한일기계과 졸업, 현재삼성코닝 해외프로젝트 담당이사

### 소재산업의 성패가 미래산업을 좌우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마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 소재산업분야에서 세계와 당당히 겨룰 수 있게 된 지금, 저는 크나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소재산업의 경쟁력이야말로 미래를 창조해내는 경쟁력이기 때문이죠. 페라이트, 파인세라믹스, LCD용 정밀평판유리-바로 세계에서 승수는 삼성코닝의 자랑스러운 자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발해야 할 첨단소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코닝으로 오십시오. 삼성코닝에서의 한 걸음이라면 다른 곳에서의 다섯 걸음과 같은 것이니까요!

### 삼성코닝에서 출발하십시오. 전세계TV브라운관 유리 5개중 1개는 삼성코닝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첨단세라믹 기술로 21세기를 여는 첨단소재 개척자 삼성코닝—삼성코닝은 각종 전자제품의 핵심인 세라믹스를 비롯 세계시장 점유율 20%가 넘는 브라운관용 유리, LCD용 정밀평판유리(세계점유율16%), VTR용 로터리트랜스폼머(세계점유율26%)등을 생산, 세계 전자산업의 발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제품: 세라믹스공장 중국 천진공장 일라이시세라믹 공장 수원공장 구미공장

첨단 소재기술을 생명이야 살리는 기업



삼성코닝

삼성코닝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외비즈니스 스쿨에서 세계 최우수 합작경영 회사로 선정 95년산업기술혁신상 통상산업부 장관상 수상

1996학년도 1학기

신규 교수 프로필

|  |  |   |   |  |
|--|--|---|---|--|
| <p><b>▲강문선</b>(법명=해원 불교대 불교학부 전임강사·신학전공)<br/>·74년 본교 불교대 불교학과 졸업<br/>·76년 본교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학위(문학석사)취득<br/>·88년 본교 대학원 철학박사학위 취득<br/>·중국선종사 전공</p> <p><b>▲최인숙</b>(문과대 인문학부 전임강사·철학전공)<br/>·75년 본교 불교대 철학과 졸업<br/>·82년부터 독일마인츠대학교에서 철학전공, 인도철학·교육학 부전공.<br/>·90년 독일 마인츠대학교 철학박사학위 취득<br/>·독일관념론 전공</p> <p><b>▲김두봉</b>(문과대 한국어문학부 전임강사)<br/>·82년 본교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졸업<br/>·88년 본교 대학원 국문과 석사학위(문학석사) 취득<br/>·96년 본교 대학원 국문과 박사학위 취득<br/>·국어국문학 전공</p> <p><b>▲이창환</b>(이과대 전산통계학부 전임강사·전산통계학전공)<br/>·82년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졸업<br/>·88년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석사학위(이학석사)취득<br/>·94년 미국 케네디캠퍼대학교 공학박사학위 취득<br/>·컴퓨터과학 및 엔지니어링 전공</p> <p><b>▲정응</b>(이과대 반도체과학과 전임강사)<br/>·83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br/>·85년 KAIST 전기및 전자공학과</p> | <p><b>▲김득영</b>(이과대 반도체과학과 전임강사)<br/>·80년 본교 이과대 물리학과 졸업<br/>·85년 본교 대학원 물리학과 석사학위(이학석사) 취득<br/>·91년 본교 대학원 물리학과 박사학위(이학박사) 취득<br/>·반도체 물리학 전공</p> <p><b>▲장하용</b>(사회과학대 신문방송학과 전임강사)<br/>·85년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졸업<br/>·87년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석사학위취득<br/>·95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박사학위(언론학 박사)취득<br/>·언론학 전공</p> <p><b>▲김석태</b>(경상대경상학부 전임강사·무역학 전공)<br/>·84년 본교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졸업<br/>·88년 미국 뉴올리언스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br/>·94년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취득<br/>·국제 경영 전공</p> <p><b>▲남기찬</b>(경상대 경상학부 전임강사·정보관리학 전공)<br/>·87년 서울대학교 금융공학과 졸업<br/>·90년 미국 버클리대학교 기계공</p> | <p>학과 석사학위 취득<br/>·93년 미국 버클리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취득<br/>·기계설계 전공</p> <p><b>▲박상관</b>(공과대 화학공학과 전임강사)<br/>·85년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 졸업<br/>·90년 미국 어번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학위 취득<br/>·94년 미국 어번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학위 취득<br/>·화학공학 전공</p> <p><b>▲안종석</b>(공과대 컴퓨터공학과 전임강사)<br/>·83년 서울대학교 전자과 졸업<br/>·85년 KAIST 전기전자과 석사학위 취득<br/>·95년 미국 남가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학위 취득<br/>·컴퓨터공학 전공</p> <p><b>▲고재석</b>(사범대 국어교육과 전임강사)<br/>·79년 본교 문과대 국어국문과 졸업<br/>·82년 본교 대학원 국문과 석사학위 취득<br/>·90년 본교 대학원 국문과 박사학위(문학박사) 취득<br/>·현대문학 전공</p> <p><b>▲신영섭</b>(예술대 연극영상학부 전임강사·연극전공)<br/>·87년 본교 예술대 연극영화학과 졸업<br/>·90년 본교 대학원 연영과 석사학위(문학석사)취득<br/>·연극이론및 실기 전공</p> <p><b>▲유지나</b>(예술대 연극영상학부 전임강사·영화, TV전공)<br/>·83년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p> | <p>학과 졸업<br/>·85년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br/>·86년 프랑스 파리7대학 대학원 기호학과 석사학위취득<br/>·91년 프랑스 파리7대학 대학원 영화기호학 박사학위취득<br/>·영화 전공</p> <p><b>▲윤소희</b>(불교문화대 국악과 전임강사)<br/>·78년 이화여자대학교 국악과 졸업(가야금 전공)<br/>·84년 이화여자 대학원 음악학과 석사학위 취득<br/>·불교음악 전공</p> <p><b>▲조태경</b>(자연과학대 전산정보학부 전임강사·통계정보학 전공)<br/>·82년 본교 이과대 수학과 졸업<br/>·84년 본교 대학원 통계학과 석사학위 취득<br/>·90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통계학과 석사학위 취득<br/>·94년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통계학과 박사학위 취득<br/>·응용통계학 전공</p> <p><b>▲김상득</b>(법정대 법정부 전임강사·행정학 전공)<br/>·84년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br/>·86년 한양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취득<br/>·92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취득<br/>·조직관리 전공</p> <p><b>▲이철기</b>(법정대 법정부 전임강사·국제관계학 전공)<br/>·81년 본교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졸업<br/>·83년 본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 취득</p> | <p>·93년 본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정치학 박사) 취득<br/>·국제정치 전공</p> <p><b>▲양정애</b>(상경대 경상학부 전임강사·국제경제학 전공)<br/>·83년 한양대학교 수학과 졸업<br/>·92년 미국 라이스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 취득<br/>·수리경제학 전공</p> <p><b>▲송유진</b>(상경대 경상학부 전임강사·정보산업학 전공)<br/>·82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br/>·87년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취득<br/>·95년 일본동경공대박사학위 취득<br/>·정보산업학 전공</p> <p><b>▲박용기</b>(한의대 한의학과 전임강사)<br/>·89년 본교 한의과대 한의학과 졸업<br/>·91년 본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취득<br/>·96년 본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 취득<br/>·본초학 전공</p> <p><b>▲박인식</b>(한의대 한의학과 전임강사)<br/>·85년 부산수산대 해양생물학과 졸업<br/>·87년 부산수산대 대학원 해양생물학과 석사학위 취득<br/>·93년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 박사학위(이학박사) 취득<br/>·해부학 전공</p> <p><b>▲김철호</b>(한의대 한의학과 조교수)<br/>·84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br/>·87년 동경대학교 대학원 농학부 생화학교실 석사학위(이학석사) 취득<br/>·90년 동경대 대학원 농학부 생화학교실 박사학위 취득<br/>·생화학 전공</p> <p><b>▲장태정</b>(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br/>·88년 부산대학교 의과대 졸업<br/>·91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학위 취득<br/>·병리학 전공</p> <p><b>▲이병현</b>(의과대의학과 전임강사)<br/>·89년 경북대학교 의과대 졸업<br/>·91년 경북대 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 취득<br/>·95년 경북대 대학원 의학과 박사학위 취득<br/>·생화학 전공</p> <p><b>▲서창호</b>(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br/>·89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br/>·93년 제23기 국군군의학고 수료, 육군대위임관(치과군위관)<br/>·치의학 전공</p> <p><b>▲윤기성</b>(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br/>·88년 경북대학교 의학과 졸업<br/>·94년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br/>·피부과 전공</p> <p><b>▲김용욱</b>(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br/>·8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 졸업<br/>·95년 서울대 대학원 의학 석사학위 취득<br/>·재활의학 전공</p> |
|--|--|---|---|--|

(이상 32명)

|  |  |   |
|--|--|---|
| <p><b>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축하합니다</b></p> <p><b>이제는 우리 모두가<br/>땀과 지혜를 합칠 때입니다</b></p> <p>생활협동조합, <b>동약의 생활협동조합</b></p> <p>새로운 대학 사회, 대학문화 창조 토대... <b>인간중심의 생활문화 창조 기수</b></p> <p>— 교수 회 — <b>— 노동조합 —</b></p> <p>생활협동조합, <b>내가 주인되는 생활협동조합</b></p> <p>학문 공동체 건설의 출발입니다... <b>이제 동약의 미래를 지킨다...</b></p> <p>— 제12대 대학원 총학생회 — <b>— 제28대 총학생회 —</b></p> <p><b>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b></p> | <p><b>전과(轉科)실시 공고</b></p> <p>1996학년도 전과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희망학생은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의 소속대학 교학과에 신청하기 바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행목적: 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자신이 원하는 전공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li> <li>2. 전과대상학과: 경찰행정학과를 제외한 전학과(계열제한 없음)</li> <li>3. 전과제한: 캠퍼스간 전과,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로의 전과</li> <li>4. 지원자격: 1학년과정을 수료하고 총성적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2학년 진급자. (1학년과정중 1개학기를 휴학하고 2학년과정 이수자도 가능)</li> <li>5. 전과허용인원: 학과 입학정원의 20% 이내</li> <li>6. 전과신청: 소속학과장 및 학장의 동의를 받아 전입 희망학과의 소속대학 교학과에 신청</li> <li>7.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일반학과: 1학년 성적평점(100%) + 면접</li> <li>나. 예능계학과: 1학년 성적평점(70%) + 실기고사(30%) + 면접</li> <li>다. 사범계학과: 1학년 성적평점(90%) + 면접고사(5%) + 교직적성·인성검사(5%)</li> <li>라. 체육교육과: 1학년 성적평점(60%) + 면접고사(5%) + 교직적성·인성검사(5%) + 실기고사(30%)</li> </ul> </li> <li>8. 전과시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원서접수: 3.5(화)~3.7(목)</li> <li>나. 전형: 3.9(토)</li> <li>다. 대상자추천: 3.11(월)</li> <li>라. 전과허가: 3.13(수)</li> </ul> </li> <li>9. 전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일반학과: 없음</li> <li>나. 예·체육계학과: 30,000원(실기고사료)</li> </ul> </li> <li>10.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전과원서</li> <li>나. 재학증명서</li> <li>다. 성적증명서(전과서류 제출용)</li> <li>라. 자기소개 및 학업이수계획서</li> </ul> </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교 무 처 장</b></p> | <p><b>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공고</b></p> <p>'96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니 희망자는 각 학과사무실로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 상 자: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2학년 재학생</li> <li>2. 신청기간: 96. 3. 6(수)까지</li> <li>3. 선발기준: 인성 및 적성, 성적을 고려 학과별로 자체 선발.</li> <li>4. 선발인원: 학과별 지정인원</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사 범 대 학 장</b></p> <p><b>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br/>이수신청서 접수 공고</b></p> <p>'96학년도 사회교육전문요원 이수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대상: '96학년도 1학기 현재 2학년 재학생</li> <li>2. 자격종류: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li> <li>3. 접수기간: 96. 3. 7(목)까지</li> <li>4. 접 수 처: 각 학과사무실</li> </ol> <p>※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에 비치된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이수요령을 참고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b>사 범 대 학 장</b></p> |
|--|--|---|

◇ '새내기 새로배움터'총평



◇ 새내기들은 '새로 배움터'에 참가해 학생회와 대학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는 시간을 가졌다.

새내기 대학문화 첫 경험의 장

학부제 이해 돕는 행사 미흡 아쉬워

96년 서울·경주 양캠퍼스 새내기 새로(미리) 배움터(이하 새터)를 지난 23일 경주캠퍼스 사복과를 시작으로 진행했다. 서울캠퍼스 새터는 '내가 택한 동국 내가 만드는 동국'이라는 기치에 90주년 새동국 건설의 단초를 마련하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기점으로 하여, 지난달 29일부터 3월 2일까지 단대별로 청주 심신수련원, 속리산 보림원, 화양 유스호스텔에서 실시했다. 경주캠퍼스는 '21세기를 향한 동국인 바로알기'를 기점으로 지난 23일 불국사에서 열린 사복과 새터,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법정대, 한의대 그의 독립된 과·학부 등을 제외한 각 단대 새터, 마지막 어제(3일)까지 신라연수원에서 실시된 법정대 새터로 마무리 됐다. 새터는 본래 학교측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서 87년 이후 학생회의 역할이 강화돼 학생회 위상 정립, 대학문화 소개 등을 목적으로 총학생회를 비

롯한 각학생회 주제로 '예비대학'이 마련된 것이다. 그 후 예비대학은 93년 새터라는 명칭으로 변경됐으나, 명목상의 변화 뿐이었다. 특히, 올해는 학부제 시행으로 인해 그에 따른 학부신입생을 위한 배려와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이 요구됐으나, 예전과 별다른 행사가 실시되지 못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는 재학생들을 과별로 구분하지 않고 섞여 반별로 배정된 신입생을 말았으며, 경주캠퍼스는 각과에서 한번씩 맡아서 반별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학부제라는 테두리 속에서 선후배간, 혹은 동기간 소속감을 갖기란 쉽지 않았다. 경주캠퍼스 총학생회 문화국장 박영식(회계·3)군은 "학부제 시행으로 인한 학우들의 단대 및 과특성의 부재를 해소하고 그에 따른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고민이 부족했던게 사실이다" 또한 "각 단대별로 자치적인 분위기에서 각 단대 행사를 추구하려 했으나 단대 이기주

의 팽배로 나타나고 말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부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평이 내려졌으나 공연면에서 아리랑(노래패), 탈춤, 동국음악회 주최로 '만해의 청년정신'으로부터 지금까지 동국 90주년을 돌아본다는 주제로 노래, 사물놀이, 슬라이드 상영 등 적절한 조화로 대학생활 모습을 보여줘 다소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다. 또한, 경주캠퍼스 공연하는 동아리 중심의 참여기획단이 구성됐으나, 기획단에서 조차 동아리 소개차원에서 그쳐 그 고민의 부족함이 드러났다. 올해 새터는 학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몇몇 단대·과와 학부제 세미나, OI뿐 변화없는 프로그램, 선후배간 공동체의식 결여 등 구체적 대안없는 새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등 작지 않은 문제점이 표출됐다. (문희부)

새내기 인터뷰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

O·T에서 느끼고 싶어...

새터에서 하룻밤 지낸 신문방송학과 96학번 최정환 학우.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를 몸소 실천, 본교의 문을 3번 두드려 들어온 늦깎이 새내기이다. 장래의 꿈인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본교 연영과 대학원 진학이 본교에 들어온 공극적인 목표라고 한다. 신방과를 택한 이유도 영화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이러한 뚜렷한 목표로 본교를 진학한 최군에게 대학생활 첫걸음이랄 수 있는 O·T는 어땠을까? "공연장소가 좁아 우선 답답했어요. 글썽, 약간 연습부족인 것 같아요. 멘트는 신기한데 사람들이 웃고, 처음 이런 대학 공연을 대해서 그런지 낯설어하는 친구들도 있구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연이 주는 메시지는 좋았어요"라며 최군은 멋쩍은지 씩 웃는다. 속수나 식사 등 생활은 어떠냐고 묻자, 속소는 약간 좁지만 학우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 좋고 밥은 너무나 맛있다고 말한다. 집이 대구라 지쳐하는 최군은

그 동안 김치찌개만 먹었다며 "여기서 살고싶다"고 너스레까지 쓴다. 그러나 장난기 있던 얼굴을 금세 거두며 이번 O·T에서 꼭 얻어가고 싶은게 있다는 최군. 그것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인데 "선배님과 학우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싶어요. 특히 선배님들과요. 저희과가 작년 신설과라 바로 왓선배님 뿐이지만 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선배님도 많아 아쉽지만 그래도 대학생활을 저보다 많이 하셨으니가 저의 대학생활에 도움이 될거라 믿어요" 최군은 1학기 생활을 한후 곧장 군대를 가야할 형편이다. 그래서 군대다니은후 대학생활이 많이 열려있다면 자못 심각해졌다. 그래서 최군은 군대다니은후 선배님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한다. 새내기로서의 대학생활이 남보다 짧은 반면이지만 하고싶은 것은 남보다 두배 많은 최군은 우선 아르바이트와 좋아하는 악기인 드럼공부를 할 생각이라며 활짝 웃었다. (진)

'대학문화가 놀기만 하는'

문화인줄 알았는데...

더 큰 공동체 문화를 느꼈어요"

흔히들 신세대라고 불리우는 그들, 대학이란 어떤 곳인지 알기위해 새내기새로 배움터를 찾아왔다. 웬지 낯설지만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선배들과의 만남, 대학문화는 흥미롭기만 하다. "대학문화는 그저 놀기만 하는 문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선배·동기들과 어울릴 공동체 문화를 느끼게 하는 곳이라는 걸 알았다"는 산업안전공학과 새내기 최정환군을 만났다. 학부제 시행으로 인해 학부에 속해있는 학우들과는 달리 최군은 독립된 과에 속해있어 "새터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선배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동기들이 많이 오질 않아서..."라며 과에대한 소속감 선배와의 어울림에 있어 거리감이 없었던 것이다. 한편, 선배들이 하고있는 등록금 투쟁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는 질문에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등록이 안되니 어

려할 수 없어 납부했지만 등록은 해야한다. 등록금의 무작정 인상은 학생들에게 장사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며 열을 올리며 말한다. 최군은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양으로 한국사를 배우고 싶는데, 특히 박정희의 친일에 대해 알고 싶더라 공과계통이지만 다양한 학문을 접하려는 학우들에 대한 의지도 깊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지말 것 같아 해할 것의 구분은 명확히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최군은 명확한 자기주관을 가진 새내기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요즘의 신세대로 규정지어지는 그들과는 다른듯한 새내기 최군은 앞으로 대학생활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박효선 기자)

취재닉수

비판의 우정

O...화양에서의 새터 하룻밤을 지낸 아침. 밥에 눈이내려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새내기들을 축복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생각도 잠깐. 밤새 기운이 떨어져 내린 눈은 비판이 되어 아침운동겸 산책을 다녀오던 새내기들을 하나둘 넘어뜨렸다. 어쩌나 안쓰럽던지..... 하지만 넘어진 친구의 손을 잡아주는 새내기들을 보는 순간 그들의 모습이 빛나는 눈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왜일까?

진짜 예술인

O...바람불고 눈도 쌓인 새터 다음날 아침. 예술대 새내기들이 손에 목장갑을 끼고 바깥 긴장한 채 서있다. 그러나 '섹시NO 1', '사우나(사랑해요 우리)를 나만함'등 재밌는 조이름이 긴장을 가볍게 했다.

이 시간은 예술대 전통인 선배들의 일한 훈련시간이라는 데, 차가운 바둑에서 기압도 받고 복창도 하고 조그만 보트도 강(?)도 건너고, 재밌는 조이름을 통해 엿보이는 창의력과 훈련을 통한 끈기가 예술대 새내기들이 멋있는 예술인이 될거라고 말해주는 듯.

경주

방 남는데 없수?

O...새내기 새로배움터 시작하는 첫날 방정탈(?) 한판 승부가 열렸다고. 도착한후 2시간 가량 단대와 자치기구는 방을 얻기위해 밀고 당기는 한편어울림(?)이. 알아보니, 이미 계약을 한 해운수련장에서 타대학과 이중계약을 해 방부족 사태가 벌어졌으니. "방 남는데 없수"하며 돌아다니는 처량

한 모습들속에 한마디 의지나 "새내기끼리 과없는 하정할, 자치기구와 단대들은 방 없는 설움(?)이 가득..."

흑과 백의 공존

O...아간 총학생회가 준비한 새내기 새로 배움터의 첫날밤은 광란의 밤이었다는 데 학부 학생회장은 만취가 되어 운학부 모임터 앞에서 행패를 부리지않나, 모과 학생은 배란다가 화장실인양 일을 벌리기도... 이에 한 학생은 "왜 술은 사람을 견(?)으로 만드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품기도 했다는데. 반면, 마지막날에 불대 학생들은 캠프 파이어 중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흥겨워하는 모습이 꼭 가족처럼 보인다고 타단대 학생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새터에서 일어난 두현상을 볼때 어떻게 한 장소에서 흑과백이 공존할 수 있는지는... (취재부)

서울

하늘로 솟은 도시락

O...오래도 갔나? 새터장소로 가는 도중 점심을 먹기위해 잠깐 쉬어간 중부 휴게소, 휴게소 여기저기서 둘러앉아 점심을 먹고 있는 신입생들. 그러나, 점심을 먹지못해 이리저리리리 뛰어다니는 재학생 집행부와 건우지너. 도대체 버스속에 붙어둔 도시락이 하늘로 솟았나? 먼저 휴게소에 도착한 단과대들은 여러개씩 먹은 사람도 많았는데, 앞으로의 새터는 참가자 전원이 도시락을 직접 지참해야 되지 않을까?

지하철종각역에서 곧바로 각... 영풍문고는 책찾기가 제일 쉽고 쾌적해! 한미더로 매마음에 꼭 들어... 자, 먼저 문학이론서에서 (한국문학사)와 (현대문학비평)을 찾고, 신학기 '세계철학의 이해' 교재인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도 한편... 이번엔 외국서적코너가 (The Secular City)~ 어! 여기있네! 온김에 오디오점에 들러 '채매이커의 나이트비드' CD 한장, 바로 옆의 무치무치 콘문구점에서 톡 튀는 디자인의 책두지루, 난 오늘 영풍문고에서 한권에 끝났네 그리고... 야호오~

1996 문학의 해... 이전, 개강파티만 남았다! 영풍문고는 신학기 대학교재와 전문서적, 최신 외국 원서교재까지 모두 한자리에 있습니다. 넓은 매장이 훨씬 여유있고 쾌적합니다. 효율적인 매장구성으로 책 찾기가 가장 편리합니다. 가장 많은 전문서적, 교양서적이 있습니다. 대형 문구점과 음반점, 컴퓨터광장 등 부대시설이 완벽합니다. 국내최대의 영풍문고는 모든 책이 있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국내 최대의 대형문구점, 대형음반점, 컴퓨터광장, 문화행사장, 휴식공간까지 한자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영풍문고- 영풍문고에서 새로운 신학기를 준비하세요. 영풍문고 399-5600, 영촌점 0343-88-1161

# “금지의 벽을 넘어 자유를 노래하라”

꽃다지 탄압...가요검열조항 폐지 좋아했더니 국가보안법 웬말



◇꽃다지 회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원용호, 이은진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탑골공원에서 무기한 거리공연에 나섰다.

‘금지의 벽을 넘어 자유를 노래하라’  
지난 2월28일 탑골공원 앞에서 백여명의 시민이 노래를 부르는 열광적인 자유행진 공연이 열렸다. 꽃다지 가수 박경희(28) 윤미진(27) 김용진(28) 3명이 ‘서울에서 평양까지’ ‘바위처럼’을 차가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맑은 목소리로 부르며 애국가도 부르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벌써 거리공연 21일째, 농성

24일째이다.  
다음아닌 지난 2월3일 원용호(서울매체, 민맥출판사 대표)씨와 그이를 후 이은진(꽃다지 대표)씨가 발간한 노래책 ‘희망의 노래’가 국가보안법 7조항 ‘이적 단죄, 제작물 유인’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어 꽃다지회원들은 타학과와 거리공연을 통해 ‘예술활동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구속된 2명의 즉각 석

방’을 주장하며 무기한 공연에 나섰다.  
이번 구속사건은 예술인들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로움에 찬물을 끼얹었다. 예술인들이 부정적 시각으로 보아는 ‘사전가요검열’조항이 폐지되어 예술인들에게 창작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지만 지금 국가보안법이 또다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이다.

‘가요검열’조항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은퇴설과 함께 이슈화된 항목이다. 반사회적인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음비법’과 ‘가요검열’ 제도가 언론과 예술단체들에 의해 이 문제가 자주 거론됐다.  
결국 ‘가요검열’조항은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특히 민중가수 정태춘씨의 6년간의 법적투쟁을 통해 예술인들이 바라던 ‘악법’이 마침내 지난 11월17일 국회에서 폐지조항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사후검열을 하는 ‘직권심의조항’이 여전히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또한 예외는 아니라는 여론이 예술인들 사이에 퍼져 나가고 있다.  
꽃다지 창작-연출을 맡은 조민하(33)씨는 창작, 예술에 대한 법에 관한 의견을 묻자 ‘유명무실’이라 일축했다. 그는 예술활동에 무리한 법적 적용을 가해 활발한 노래단체를 표적수사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방북, ‘사노맹 재건기’로 각각 구속된 소설가 장길산씨 박노래씨 등 소중했던 예술가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노래할 겁니다. 그리고 감옥안에서의 예술활동 보장 등 진보적 예술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문제가 주된 문제인

만큼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 참여, 토론회 주최, 문제부 향의 방문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꽃다지 구속사건’에 징고 넘어가야할 수수께끼가 있다.  
구속사유가 된 ‘희망의 노래’ 책자의 발간은 1년전, 심지어 4년전의 일까지 포함된 시점에 공안수사담당국이 지금 원용호씨와 이은진씨를 구속한 것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희망의 노래’는 매년 만권이상 팔렸으나 행사는 1년전부터 판매금지 신조항으로 우리를 조사해왔다”며 “이것은 예정된 각본으로 총선을 대비한 표적수사이다”라고 조민하씨는 주장한다.  
선거철만 되면 으레 신문지상에 나오는 기사가 있다. 간첩사건과 조작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사회안정’이란 발미로 정권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목적인데 일반국민 민중문화회를 통한 대중사업을 통해온 것과 이번 ‘꽃다지 구속사건’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문화예술인들은 “‘꽃다지 구속사건’은 단순히 민중가요 노래패와 유통, 기획단체에 대한 탄압을 넘어서 총선을 겨냥해 민중운동진영의 폭을 좁히기 위한 목적이 숨어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상용 기자)

## 달 하나 천가에

정확한 통계는 왜 중요한가



우리는 통계라 불리는 각종 숫자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요즈음 역사는 통계학자들이 쓰고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통계는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각종 의학적조사나 사회지표 불가지수들을 통해 현재 삶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으며, 미래정보화 시대에는 통계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유용한 이용은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발전에도 초석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통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이의 남용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저변에 또 다른 불신을 조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는 특정한 이익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통계를 이용할때나 정치집단이 그들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사회조사에 경우 알고자하는 특성을 수치로 표현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설문지 작성도 가치중립성이 확보된 내용을 선택해야하는 물론이나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 내의 모든 개체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몇가지 조건들이 선행되지 않은채 실시된 조사의 결과는 신뢰성이 없으며 이를 믿고 실시한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커지게 된다. 우리는 다음 몇가지 사례를 통해 통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지난 독재정권 하에서 실시된 국가 중대사에 대한 국민투표의 결과가 대부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지지율이 국민들의 참된 의사를 반영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낙태 문제를 두고 인구관련 단체와 종교관련 단체에서 각각 발표하는 결과는 너무 달라서 모두 신뢰성이 없으며 정당에서 발표하는 스스로의 지지율도 믿을 수 없다. 이들은 특정결과를 강요하는 분위기 하에서 실시된 선거의 결과이며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표본을 설계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켈빈은 말하기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나 그 보다 더 나쁜 것은 세밀한 거짓말이요 그 위에 통계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통계는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를 이용한 과학적 거짓말이 될 수도 있으므로 세상을 어지럽게하는 대상들 중에 으뜸일 수 있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확한 수치를 접하고 이를 올바르게 해석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올바른 정보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정확하고 올바른 통계 정보는 마치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공기과 같아서 사회를 맑게하기 때문이다.

심규박 자연과학대 전산통계학과 교수



## 동아리 문화읽기

이번호부터 '동아리 문화 읽기'라는 고정란을 신설합니다. 동아리를 통해 대학문화를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해 봅니다. (편집자)

경주캠 문예분과

이번호부터 '동아리 문화 읽기'라는 고정란을 신설합니다. 동아리를 통해 대학문화를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해 봅니다. (편집자)



## 지역속에서 다양한 대학문화로의 전환

7-80년대 대중문화와 민중문화가 이분법적 논리로 확인된 구분되던 시기를 넘어 90년대는 대중적 민중문화, 민중적 대중문화의 개념이 대학속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변화 속에 대학문화를 이끌어가는 동아리문화의 그 변화양상을 읽어보자. 특히 이번 경주캠퍼스 문예분과 속의 동아리 문화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식적이 아닌 순수취향에 의해 모인 소나비(영화감상), 유로스(댄스 동아리), 동국음악회 Seven Class(음악동아리) 솔메리아(Rock Metal), 불휘(풍물패) 등이 있다.  
사상적 성격을 띠는 동아리에는 우선 민중해방·노동해방의 민중문화운동연합회(의장=이병현·철학3) (이하-민중연)가 있는데, 이에 소속된 동아리는 해방풍질(풍물패) 고전극 연구회 알샬(노래패), 하늘 땅 사람들(그림패) 등이 있으며,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대학문화 건설

을 위한 남녘방 북녘하늘(노래패), 새벽을 여는 사람들(풍물패) 등이 있다.  
이들 7-80년대 저항문화를 주도했던 동아리들 또한 그러한 민중문화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어 감을 볼 수 있다.  
이 흐름에 대해 임시문예분과장(하동주·경원3)은 “지금의 민중문화는 대중문화에 흡수 되었으며 신세대 감각과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현실속의 대응방안

대해 민중연의장 이병현군은 “민중문화가 대중에게 친근감을 다가서기 위해 함께하는 공연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대중문화의 취향과 관심을 가진 동아리들은 정서순화를 통한 진정한 대학문화를 이끈다는 생각에서 모인 동아리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중음악 동아리인 동국음악회 김유진양(일문:3)은 민중가요 노래패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음악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의 차이이며 모

든 동아리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민중문화 문예패가 아닌 이들 동아리는 대중문화의 모방보다는 그들의 창조성과 다양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제 대학문화-동아리 공연, 이벤트 사업등-은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지역과의 연대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역속에서 다양한 대학문화 표현의 고민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허민희 기자)

## 문화단신

◇바다의 도시 이야기...일본작가 산토리 시오노의 베네치아 공화국의 웅성과 몰락과정을 그린 역사평석서, 81년 일본에서 출간됐을 당시 ‘비즈니스맨의 필독서’로 불릴 정도였으며 지난 번역 출간된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에게 ‘산토리 학예상’을 안겨준 책. 한길사에서 출간 됐으며 전2권으로 가격은 8500원.  
◇치즈케이크 모양을 한 나의 가난...‘바람의 노래를 들려라’, ‘상실의 시대’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또다른 작품. 철길에서 사는 가난한 신혼부부, 편지를 쓰며 소외감을 달래는 젊은 부부, 의미없이 몸을 파는 직장여성 등 흔들리는 현대인의 초상을 그렸다. 파피루스에서 출간. 가격은 5300원.  
◇눈은 도둑 이야기...지난해 창간한 극단 차이무가 그들의 두번째 작품으로 ‘눈은 도둑 이야기’를 이번 달 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동송 스튜디오 시어터에서 공연한다. 89년 동송아트센터 개관기념 제1회 동송 연극제에 초청되어 호평을 받은 연극으로, 특사로 풀려나온 눈은 도둑 2명이 개인 소유의 현대미술관에 들어가 미술품을 놔두고 현금만을 훔쳐 갔다. 불합리한 줄거리를 연극자인 명계남, 박광정, 유오성씨 등 출연 화·목 오후 7시30분, 금~일 오후 4시30분, 7시30분(월은 월). (02)3673-0792

# 세상 모든것에 눈을 뜰 나이!

## 시바비전 칼라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함께

**신입생**  
세상이 마냥 푸르게만 보인다! 마치 푸른색 선글라스처럼...

**2학년**  
잡을 수 없는 왕성한 지적 호기심! 진리를 탐구하는 현미경...

**3학년**  
스스로를 되돌아 볼 줄 안다! 성숙미를 갖춘 백미러...

**4학년**  
사회라는 넓고 큰 바다로! 새로운 항해를 위한 망원경...

일반렌즈는 정밀한 절삭기술이 부족하여 별도의 마무리 작업을 한번 더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렌즈 자체의 정밀성을 떨어뜨려 렌즈의 교정력을 저하시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시바비전 칼라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세계적인 첨단 항공무기 제작사인 미국 Rank Pneumo사의 초정밀 렌즈 기술로 정밀하게 만들어 지므로 렌즈의 정확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시바비전 칼라 소프트 콘택트 렌즈**

- 푸른 칼라가 있어 분실 위험이 적고, 착용 및 세척도 편리합니다.
- 미국FDA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적인 콘택트렌즈입니다.
- 미국FDA의 공인으로 그 안정성을 인정 받았습니니다.

• 제조원 : CIBA VISION INC, Atlanta, Georgia, U.S.A  
 • 수입판매원 : 주식회사 율티마 서울시 관훈동 198-42(관훈빌딩 1204호)  
 • 고객센터전화 : (02)734-4221, 737-0816

한국인의 아름다운 눈을 찾아 왔습니다.

시바비전(APOC)이사이 태생인 인공렌즈 공시 후원업체입니다.

시바비전 안경원이나 안과에서 찾아주세요.

# 학술문화관 공간배치 마찰

## 원충, 지상 1층 배치 요구·예대, 조소실기실 확보 주장

### 해당과 점거투쟁-학교측 강경 입장



◇ 지난달 26일 학술문화관 전시실에서 예술대 학생과 교수들간의 간담회가 있었으나 아무 성과없이 끝난채 학생들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본교의 만성적인 공간문제가 학술문화관안공에 따른 공간배치의 의견충돌로 미술학과와 대학원이 점거에 들어가는 등 심각해지고 있다. 동국학술문화관이전을 앞두고 대학원 총학생회(회장=김태호·철학 3학기)는 대학원생 연구공간 지하배치에 반발, 지난달 28일부터 학술문화관 지상 1층 점거에 들어갔다.

이번 점거는 '연구공간 지상배치'라는 대학원생 요구안이 학교측에 의해 거부되자 지난 28일 침묵시위, 성명서 배부후에 강행됐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 1월5일

총장명단에서 전용공간에 대한 문제제기를 처음으로 학교당국과 계속적으로 공간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 동국학술문화관 정식 공문에 대한 기초실의 답변거부후, 2회에 걸쳐 비상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요구안과 서명 최종안이 학교측에 의해 거부되자 지난달 26일 긴급비상대회에서 '지상 1층점거'를 결정했다.

대학원 총학생회측은 "학부제 개편후 학교가 연구중심, 대학원중심을 표방하면서도 대학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조차 없다"고 밝히며 "재판이 안되고 소원과 악취가 심한

동국관 지하에서 6년을 보낸 일생들을 또다시 지하로 내몰수 있는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반해 학교측은 "앞으로 대학원을 확충할 계획이기에 행정조직은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원장실, 교학실이 지하로 배치되는 것은 의외상 좋지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술문화관 기존배치안은 연구실, 열람실, 컴퓨터실, 지하중, 교학부실, 원장실, 세미나실을 지상 1층에 배치했다.

한편, 김태호 학생회장은 "주로 야간수업을 듣는 특수대학원생들에

게 세미나실 7개를 배정한 반면, 주·야로 연구에 전념하는 원우들에겐 1개의 세미나실도 배정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해 공간협상의 지속적인 난항을 예고했다.

예술대가 지난 27일 학교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소전공을 이전 시킬때 따라 예술대와 학교측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7일 모든 과의 이동이 끝난 예술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잠정적인 강제점유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조물전성체 단일건물과 최소한의 학습공간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예술대 학생회(학생회장=김재영·연영4)는 "학우들의 힘을 모아내는데 아직은 어려움이 있지만 조직적이고 활발한 투쟁을 학우들과 연계해 나가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지난 28일 꾸렸다"며 "비대의 회의를 거쳐 개강후에도 점거농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술대 문제는 또한 학교측 뿐만이 아닌 전공교수와의 문제까지 번지고 있다. 이전하기 전과 이전후 전공교수들의 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술대 한 학우는 "학교측에 잘 보이려는 생각보다 진정 학생들을 생각해 주는 스승이 되어 주셨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예술대의 학술문화관 점거 문제에 대해 학교측은 학술문화관이 준공되는 오늘(4일)까지 조소전공 이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예술대 학생대표자들을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태호 학생회장은 "주로 야간수업을 듣는 특수대학원생들에

# '내가 택한 동국 내가 만드는 동국'

## 총학, '새내기 새로 배움터' 개최

신입생들이 대학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가 이북 수해지역 돕기운동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치러졌다.

제28대 총학생회(회장=유병문·불4)주최로 열린 이번 새터는 신입생과 재학생 2천6백여명이 참가하여 지난달 29일부터 지남2일까지 2박3일동안 청주 심신추련원(중대, 이과대), 화양 유스호스텔(사과대, 생자대, 예대, 야간강좌) 속리산 보림원(사법대, 경상대, 법대) 세지역에서 열렸다.

'내가 택한 동국, 내가 만드는 동국'이라는 모토와 '개교 90주년 새동국 건설의 단초 마련'이라는 기조아래 치러진 이번 새터는 장소가 나뉘어져있어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보림원과 화양은 첫째날에 중앙공연과 동아리연합회공연이 있었

고 심신추련원에서는 둘째날에 공연이 진행됐다.

삼일중 하루는 중앙공연행사가 이들은 단과대별 행사가 치러졌다.

단과대별 행사는 신입생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공동체놀이를 비롯해 과별, 학부별로 나누어 진행된 조별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새터와 함께 진행된 '이북 수해지역 돕기'행사는 2박3일간 세지역에서 대자보 선전과 녹차, 대추차등의 전통차를 나눠주는 등 다양한 선전으로 신입생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번 새터는 공연행사가 일방적으로 보여주기엔 그친것과 운영상의 미흡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문화관 식당 내달 개관

## 원충가든 '아리수'로 새단장

학술문화관식당 '목막골'이 오는 4월1일 개관할 예정이다.

위락운영계열 목막골은 지난 9일 일차공고를 시작으로 15일 일차실명회를 가진후 24일 이후 위락업체를 선정한다.

목막골을 위탁으로 결정하게된 동기에 관해 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의 한 관계자는 "생활협동조합의 출범과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2년6개월간 위탁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직원 전용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인 목막골에서 식비는 평균 4천원정도로 알려져 학생들이 식당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규모는 2백80명정도로 2백명의 다관보다 더 크고 호화스러운 면모를 갖출 것이라 전해졌다. 위생시설과 위치에 관해 문제가

많았던 원충가든은 오는 3월4일부터 새롭게 개장한다.

'아리수'란 이름으로 공동독서실로 이전한 원충가든 휴게실은 수익금의 외부유출을 막아 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영운영할 예정이다.

# 장학 제도 개선

## 복학생에게 혜택

학기를 변경해 복학한 재학생들 중 7학기(4학년 2학기)때 과수석과 차석을 하고도 졸업생으로 간주되어 장학금을 받지 못한 성적우수자들에게 올해부터 혜택이 돌아간다. 지금까지는 학기를 변경해 복학한 재학생들이 7학기때 성적장학금에 해당되어도 졸업생으로 간주되어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장학과의 한관계자는 "이번엔 10여명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 참사람 만드는 열린 동국이라는 기치아래 실시된 학교측의 대학생생활 안내 행사가 장충체육관에서 치러졌다.

# 대학생 생활안내 행사 열려

## 올해부터 실시되는 신교육제도 교양

신입생을 위한 학교측의 '대학생 생활안내'행사가 신입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장충체육관에서 치러졌다.

'참사람 만드는 열린 동국'이라는 모토아래 치러진 이 행사는 본교 방송국 아나운서 정광수(생명자원경제3), 김혜선(역교 3)의 사회로 △개교 90주년 기념사업안내 △송석구 총장의 화해와 구무위원소개 △백상응원단, 손짓사랑회, 불교합창단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3시간여동안 진행됐다.

이 행사에서 송석구(철학)총장은 신입생들에게 '본교의 역사와 교육이념' '재단과 10만동문의 활동' '신교육제도와 일선 제3캠퍼스 설립'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박준규 학생처장은 96년부터 시행되는 신교육제도의 하의 학점문제, 전과제도, 복수전공등 이전과 다른 제반사항들을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알렸다.

한편, 이날 행사는 손짓사랑회의 수화공연, 불교합창단과 백상응원단을 따라 교가와 동대응원가를 함께

# 학업지도교수제 운영

## 신입생 대상...학업·진로 도움

교무처(처장=장오현·경제학)는 이번 1학기부터 신입생의 학업과 진로상담을 지도하기 위해 학업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운영한다.

이번 신입생은 학부제 선출되었음을 고려하여 신입생전원을 학부(계열), 학과 전체교수에게 인원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배정하며, 학업지도교수는 소속학부(계열)의 학부장, 전공주임교수가 배정하게 된다.

따라 부르는 등 자년 학교측의 '대학생활안내'와는 다르게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학업지도교수제 운영

## 신입생 대상...학업·진로 도움

교무처(처장=장오현·경제학)는 이번 1학기부터 신입생의 학업과 진로상담을 지도하기 위해 학업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운영한다.

이번 신입생은 학부제 선출되었음을 고려하여 신입생전원을 학부(계열), 학과 전체교수에게 인원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배정하며, 학업지도교수는 소속학부(계열)의 학부장, 전공주임교수가 배정하게 된다.

# 생협설립 준비 한창

## 교수회·노조 일괄가입 결정

올해 출범할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설립준비가 한창이다. 본교 생협설립 발기인회는 지난 27일 장충체육관에서 실시된 O.T에서 신입생에게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안내' 팸플릿과 '생협가입 신청서'를 배포 했다.

오는 4월1일 출범예정인 생협은 본교 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이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은 최소인 1구좌(1구좌 1만원)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출자금은 한번만 내면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최대 50구좌까지 출자 및 증좌할 수 있다.

현재 교수측과 직원측은 각각 지난 28일 치러진 교수총회와 노조총회에서 조합원 가입방식을 전원강제가입제(UNION SHOP)로 결정한 상태이고, 학생측은 지난 26일 있는 학생대표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상사되지 못함에 따라 조합원 가입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나 학생측도 전원강제가입제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교수측과 직원측은 3월 급료에서 신청한 구좌금액만큼 출자금이 자동납부된다. 그리고 신입생은 27일 배포한 생협가입신청서와 출자금 납부 통지서를 통해 원하는 구좌수만큼 자율 납부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 학생측의 조합원가입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신입생에게는 자유가입제(OPEN SHOP)를 적용한 것으로 지난 29일 아침까지 64구좌가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학생들의 조합원가입방식이 전원강제가입제로 결정되면 재학생들은 2학기부터 등록금고지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출자금을 납부하게 된다.

# 고려대장경 번역본 26권 출판

## 역경원, '65년부터 총 1백88권 발행

역경원(원장=김성구)은 95년 말부터 올해 1월 사이에 '고려대장경 한글 번역작업'의 일환으로 '근본설비추비나야의 각권을 발간했다. 65년부터 시작된 이 번역작업은 현재 이번이 출판된 26권을 포함, 총188권을 발행한 상태이다.

역경원의 한 관계자는 "지나해발 석굴암과 함께 세계문화재로 지정

제가입제(UNION SHOP)로 결정한 상태이고, 학생측은 지난 26일 있는 학생대표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상사되지 못함에 따라 조합원 가입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나 학생측도 전원강제가입제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교수측과 직원측은 3월 급료에서 신청한 구좌금액만큼 출자금이 자동납부된다. 그리고 신입생은 27일 배포한 생협가입신청서와 출자금 납부 통지서를 통해 원하는 구좌수만큼 자율 납부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 학생측의 조합원가입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신입생에게는 자유가입제(OPEN SHOP)를 적용한 것으로 지난 29일 아침까지 64구좌가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학생들의 조합원가입방식이 전원강제가입제로 결정되면 재학생들은 2학기부터 등록금고지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출자금을 납부하게 된다.

역경원(원장=김성구)은 95년 말부터 올해 1월 사이에 '고려대장경 한글 번역작업'의 일환으로 '근본설비추비나야의 각권을 발간했다. 65년부터 시작된 이 번역작업은 현재 이번이 출판된 26권을 포함, 총188권을 발행한 상태이다.

역경원의 한 관계자는 "지나해발 석굴암과 함께 세계문화재로 지정

# 한총련, 등록금 인상 저지 결의

## 총학, 등록금 납부지연 투쟁 전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은 지난달 24일 연세대에서 본교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1백50개대 학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위를 통해 등록금인상저지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한총련은 이날 오는 27일을 '총련의날'로 정했으며, 이에 맞추어 학교별로 26일 행사를 가진 후, 27일 학교상황에 맞추어 집단행동을 가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교 총학생회도 한총련방침에 맞추어 오는 4월 8일까지 등록금지연납부를 결의했으며, 개강에 맞추어 등록금 관련 투쟁방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 신입생 특별시험 실시

## 초과학점 취득 기회

교무처(처장=장오현)는 서울캠 '96학년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특별시험을 실시한다. 오는 9일 실시될 특별시험은 교양필수 실용영어 I(1학점)과 컴퓨터실습 I(2학점) 2과목에 한해서 치러진다.

원서는 오늘(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교무과에서 교부 및 접수한다. 교무과 한 관계자는 "이번 시험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경원(원장=김성구)은 95년 말부터 올해 1월 사이에 '고려대장경 한글 번역작업'의 일환으로 '근본설비추비나야의 각권을 발간했다. 65년부터 시작된 이 번역작업은 현재 이번이 출판된 26권을 포함, 총188권을 발행한 상태이다.

역경원의 한 관계자는 "지나해발 석굴암과 함께 세계문화재로 지정

제가입제(UNION SHOP)로 결정한 상태이고, 학생측은 지난 26일 있는 학생대표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상사되지 못함에 따라 조합원 가입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나 학생측도 전원강제가입제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교수측과 직원측은 3월 급료에서 신청한 구좌금액만큼 출자금이 자동납부된다. 그리고 신입생은 27일 배포한 생협가입신청서와 출자금 납부 통지서를 통해 원하는 구좌수만큼 자율 납부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 학생측의 조합원가입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신입생에게는 자유가입제(OPEN SHOP)를 적용한 것으로 지난 29일 아침까지 64구좌가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학생들의 조합원가입방식이 전원강제가입제로 결정되면 재학생들은 2학기부터 등록금고지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출자금을 납부하게 된다.

# 조선왕조실록 불교관계기사 번역

## 불교문화연구원, 3권으로 발간

조선왕조실록 불교관계기사 번역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책 3권에 걸쳐 발간할 예정인 이번 발췌, 번역 작업은 지금 현재 태조실록부터 성종실록까지 불교관계 기사를 책 1권으로 출판하고 있다. 불교문화연구원(원장=권기중)의 한 관계자는 "지금 1권은 인쇄소에 담긴 상태이지만 교정기간이 너무 길어 1학기 안으로 책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역사자료에서 불교기사를 뽑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이며 특히 유교시대때 편찬한 조선왕조실록에서 불교기사를 찾는 것은 의미있

는 일'이라 덧붙였다.

# 동국사랑저금통

## 발전기금에 '작은 보탬'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에서 지난해 12월 배포한 동국사랑저금통이 기금모금에 '작은 보탬'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대학원에 재학 중인 편미지(문예창작 2학기)씨등 3명이 저금통을 통해 기부, 총30만 8천9백원이 모금됐다.

# 회·전 무대

## 플라스틱 신드롬

○... "나나 너는 너 모두 똑같이 살순없어"

지금 노래방에서 히트하는 김중서 노랫말이 우리학교에 맞은건 아닐런지. 다름아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학교측과 학생측이 서로 간섭을 안한다는 조건으로 따로따로 개최했다.

처음부터 신입생들에게 학교와 학생은 분리라는 의식을 심어줄 것을 우려한 회전무대자가 좋아하는 노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노랑(?)

○... 요즘 가장 손쉬운 아르바이트?

단연 선거관 박수부대가 아닐런지. 박수치고 함성만 질러주면 일당 5만원. 여학생의 경우 참담대회 도우미로 뛰면 최고 일당 10만원까지 준다는데.

이는 모두 돈 안쓰는 선거, 법정비용한도는 무시한 채 '20억당선·10억탈락'이라는 말만 믿고 있는 각 당의 후보자들 덕분이라고.

이에 본 회전무대가 한마디 "정치인들은 벽에 X 칠 아닌 돈칠 할 정도로 노랑된 것이 아닌지..."

함흥차사

○... 지난해 7월 푸른바다를 걷게 물들이던 대형사고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대형사고가 터져 온국민의 눈살이 여지없이 구겨진다.

사고선박회사로부터 국회의원, 경찰서장, 민선군수까지 무더기로 뇌물을 받아먹은 것, 사건의 흐름이 PK 핵심으로 알려진 해양경찰청장에게 다다르는 순간.

어허라 목이 빠져라 기다려도 함흥차사일세.

빛 좋은 개살구

○... 문민정부는 문민독재 문민정부 3를 맞아 방송3사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김영삼 정권에 후한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진정 이를 바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시큰둥. 시청률이 낮았다...

과거 야당시절 국가보안법철폐, 특정지역위주의 인사정책 비판등을 주장했던 김씨가 과연 얼마나 개혁적인 개혁을 했는지 생각해볼 여지가...

이에 본 회전무대가 한마디 "보기좋은 03이 먹이에는 영..."

영화의 패러독스

—패러디 천재 우디알렌의 '브로드웨이를 쏘라'

비예술이 예술이 되는 생의 아이러니



◇예술가의 허위의식을 풍자한 우디알렌의 '브로드웨이를 쏘라'.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교수·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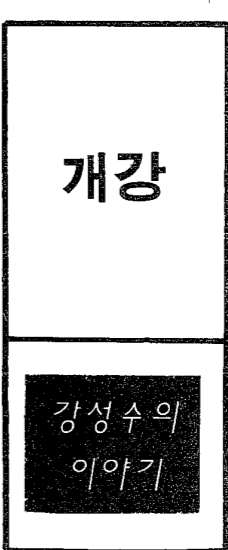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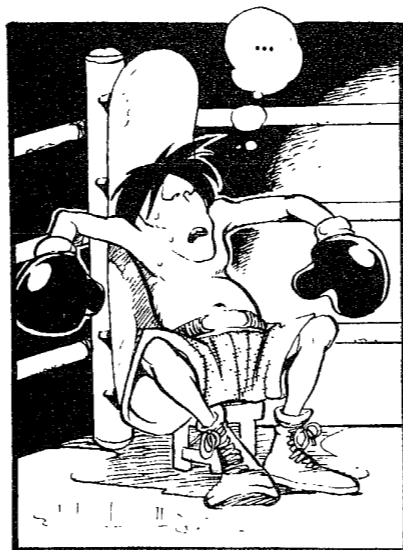
예술과 비예술의 간격은 얼마만큼 클까? 우디 알렌의 영화(브로드웨이를 쏘라 *Bullets over Broadway*)는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예술이 아니고, 비예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예술이 되고마는 불가사의한 생의 아이러니를 그리고 있다. 시대는 1920년대 재즈와 금주법, 미국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심각했던 불황, 그리고 경들의 전성기였던 시기를 재현해낸다. 그시기에 뉴욕의 브로드웨이라는 화려한 연예계의 뒷무대를 소재로 하고 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젊고 유능한 극작가인 데이빗(존 투삭)이다. 그는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 자기의 희곡을 제시하지만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 그러나 어느날 그에게 행운이 찾아오는데, 그의 희곡을 상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연출까지 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극단에서는 조건이 있었다. 반드시 여자 주인공으로는 올리브라는 이름의

신인배우를 기용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알고보면 내막은 이렇다. 올리브는 마피아 경두목의 정부이자 평범한 소걸이였는데 경두목은 그녀를 브로드웨이의 무대배우로 성공시키기위해 극단에 압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극단은 물질적 지원을 받고 연극을 올리는 대신 주연배우를 경의 정부로 쓰고 훗날이 신인 극작가를 내세운 것이었다.

더욱 아이러니한 일은 경두목의 보디가드였던 치치가 연극을 수정하여 자기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일자무식하긴 하지만 연극을 하두 많이 보다가 연극에 대한 식견을 원작자인 데이빗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었다. 결국 작품은 치치의 것이 되어갔고, 데이빗은 할 일이 없어졌다. 치치는 연극이 되기 위해서 주인공인 올리브가 빠져야 한다는 걸 데이빗에게 강조한다. 그러나 데이빗은 올리브를 뺄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연극의 돈을내는 경두목의 정부였기 때문이다. 결국 치치는 자기가 올리브를 차지해버린다. 올리브가 실종되자 경두목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치치를 죽여

버린다.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총소리가 울리며(이에 바로 영화의 제목이다)두 명이 살해된 것이다. 그러나 객석의 관객은 그 내막을 모른다. 이를 지켜보던 데이빗은 문득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그가 생각한 예술은 이렇게 아니었던 것이다. 또, 이제 예술이라면 그는 절대 할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좋아했던 여배우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친구에게로 갔던 애인에게 다시 사랑을 호소하며 평범한 서민이 되겠다고 맹세한다. 그는 예술의 세계를 중요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로 복귀한 것이다.

이 영화는 필름 누아르의 어두운 세계와 뮤지컬의 화려한 성공 이야기, 순수한 사랑의 멜로 드라마,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조리한 코미디의 장르가 복합화 되어있는 우디알렌 특유의 작품이다. 우디 알렌은 흔히 '패러디'의 천재라고 하는데 이 영화 역시 그의 패러디적인 모방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그는 코미디를 만들고 그건 진정한 인생드라마로 변해버린다.



개강

강성수의 이야기

◇경주 사리리 유물 발굴현장을 찾아서

청동기시대에서 삼국시대까지 유물출토 가옥구조 및 묘제연구의 중요자료



◇실내 발굴작업 현장

노천박물관이라는 경주, 경주 곳곳에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유물들이 많다.

지난 1일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유물들이 다량 출토돼 학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경주 서면 사리리를 찾았다.

사리리 발굴현장은 경주시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명성이 제2공장 건립을 위해 부지조성작업을 하던 중 그 지역 주민에 의해 신고되었다고 한다.

나즈막한 산능선에 위치한 발굴현장은 서너개의 비닐하우스와 발굴단이 머물며 실내작업을 한 가건물 그리고 발굴이 끝난 지역의 공사로 포크레인 소리가 요란했다.

발굴단 일원인 김진(본교·고미사 95졸)씨의 안내로 가건물 중 한곳에 들어가 짧게 인사를 나눈 뒤 발굴작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사리리 고분군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유물로는 청동기시대 장방형 주고지4동의 유적에서 원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의 목곽묘와 적석목곽묘가 중복되어 나타났고 무문토기저부, 합인서부, 방추자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원삼국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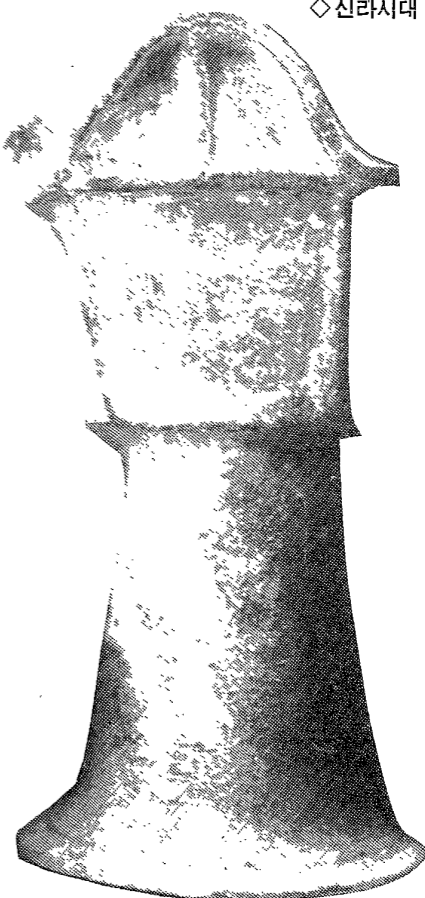
삼국시대의 유적은 목곽묘5기, 장방형과 세장방형이 목곽묘 7기, 도굴과 경작으로 파손이 심한 적석목곽묘 42기, 6세기 이후 늦은 시기에 출현한 석곽묘 10기등 각기 시대를 달리하는 본묘 1백30여기를 확인하였고 조사된 다양한 유구는 신라시대 묘제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고 한다.

유물로는 토기류4백점, 철기류 2백47점이 출토, 이중 완형의 집모양 토기가 5호 목곽묘에서 출토되었다. 완형의 집모양 토기는 유구가 있는 상태에서 완형으로 출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시 신라사회의 가옥구조 등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한다.

김진씨의 말에 의하면 출토된 유물은 현재 영남문화재연구원에 보관 차후 나라에 귀속되어 경주·대구 등지의 박물관에 나누어 전시될 것이라고 한다.

주민의 신고로 시작된 사리리 발굴에 대해 김진씨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업자측이 모든 발굴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1백평미만의 개인의 이익목적이 아닌 공사에는 국가에서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신라시대 '집모양 토기'



되었다고 한다.

또한 경주시 관청의 무관심과 문화재 보호 노력의 부족으로 인한 행정적인 문제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씨의 설명과 함께 들려 본 발굴현장 곳곳에 유구발굴이 끝나 한테두리 칠을 해둔 것이 눈에 띄었다.

한 적석목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수집하기 위해 출토된 발굴현

의 조심스러운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유적지를 돌아본 후 출토된 유물을 직접 볼 수 없었던 점을 아쉬움으로 남긴채 경주로 돌아왔다. 경주는 '노천박물관'답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칭이 참으로 어울린다는 것을 이번 유물탐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용)

메아리

대한독립

▲3·1운동의 민족자주정신을 이어받아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를 막아내자. 독도는 우리땅! 대한독립 만세! 어느덧 77돌이던 지난 3월1일 3·1절에는 전국에서 만세운동 재현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한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뜻을 기렸다. 일본의 독도방언으로 어느때보다 반일감정이 고조된 시기에 기미년 3월1일 전국을 울렸던 대한독립 만세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얼마전 한국은행이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와 함께 작성한 한-일 국제산업연관표는 일본문화의 조상인 우리의 체면을 말아 아니게 만들어버렸다. 한국과 일본이 거래를 끊으면 일본은 산업생산이 0.5%밖에 줄어들지 않지만 우리는 17%나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대일 무역적자는 아직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신학기 준비로 잠깐의 수입을 보고 있는 용산전자상가와 문구 백화점에서 서글픈 장면이 목격된다. 수정액을 파는 곳에선 국산 제품을 찾을 수 없고, 미니카세트 매장엔 '아이와, 파라소너, 소니'등 친숙한 일제제품만이 있을

뿐이다. 일제제품 불매운동을 감성적으로 느끼는 우리지만 '없으니 어쩔수 없지 않는'나의 이성의 목소리가 우리를 끌어안고 있다. ▲하시모토 일본총리의 독도 방언이후 우리의 반일감정은 팽배해져 있다. 마일드 세븐 등 일본답배를 가게에선 팔지도 않고 소비자 또한 일제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일제 시대의 잔재인 '국민학교'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등 생활속에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중 일본의 '기술'이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될까? 중화학공업 핵심부품에 대한 획기적 기술개발과 자본재·소재부품의 국산화노력이 절실히 필요할때다. 우리는 독립하고 싶다. 하루빨리 대일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길 기대해본다. (주)

WANTED, 21세기 콜럼버스!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기 보다는 남다른 꿈에 도전하는 사람  
21세기 콜럼버스!

청구그룹은 21세기 콜럼버스들의 창의적 도전정신과 함께합니다.

남다른 사고와 남다른 꿈으로 건설, 유통·물류, 방송, 정보통신 및 금융지원분야에서 21세기를 향해 창의적인 도전을 거듭하고 있는 젊은 그룹, 청구가 대내외 21세기 콜럼버스를 찾습니다.

창의적인 봉사활동, 창의적인 팀원, 창의적인 전시회, 창의적인 탐구활동... 각 동아리의 성격에 맞는 창의적 도전이라면 어떤 분야라도 좋습니다. 21세기를 향해 남다른 사고로 남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동아리들의 행사계획을 청구그룹으로 보내 주십시오. 정기적으로 1팀씩을 선발, 대학자 광고에 그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응모자격: 창의적 도전활동을 계획하고 있거나 실행중인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동아리
- 응모서류: 동아리 연혁 및 활동을 소개하는 글과 사진, 행사계획서 1부, 학생과 승인서 1부
- 보내실곳: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62-7 (우)135-081 청구총무기획팀 21세기 콜럼버스클럽 담당자 앞
- 문의전화: (02)561-4673

21세기 콜럼버스 靑丘人



청구그룹